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1.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5.1	10.9	23.4	36.3	20.6	20.6	1.2	1.2	1.5	1.5	<p>SKT 33.9% (Flat WoW, Flat MoM) KT 44.0% (-0.2%p WoW, -0.1%p MoM) LGU+ 30.2% (-0.3%p WoW, -1.1%p MoM) KT, LGU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순매도 기록</p>
통신업종	-2.8	-0.4	1.1	7.3	10.8	10.8	0.7	0.7	4.2	4.2	
SK텔레콤	-2.5	-0.4	0.0	5.8	14.0	10.2	0.8	0.7	4.2	4.4	
KT	-4.8	-1.2	4.6	-0.4	8.7	7.4	0.4	0.4	4.7	5.0	
LG유플러스	-1.7	-2.1	2.2	-5.6	6.8	7.8	0.7	0.6	3.6	3.9	
AT&T	0.0	-1.1	0.3	-4.4	9.3	9.2	1.1	1.1	7.3	7.3	
Verizon	-0.4	-4.3	-0.8	7.2	12.2	11.7	3.5	3.1	4.2	4.3	
T-Mobile	2.0	1.3	18.9	27.2	47.4	42.6	2.4	2.6	0.0	0.0	
NTT Docomo	0.0	0.2	0.1	34.6	21.2	20.2	2.4	2.3	3.1	2.8	
KDDI	1.9	3.0	14.5	-3.4	11.2	10.8	1.6	1.5	3.7	4.0	
Softbank	-0.2	11.1	23.5	43.1	N/A	8.5	2.0	2.2	0.5	0.5	
China Mobile	0.8	-5.7	-10.6	-18.9	7.1	7.0	0.7	0.6	7.8	8.0	
China Unicom	2.1	-4.3	-11.9	1.8	9.0	7.9	0.3	0.3	4.4	4.9	
China Telecom	-0.5	-8.9	-7.3	-5.7	6.7	6.4	0.4	0.4	6.2	6.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7.9%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연말 배당 매력에 소멸되며 국내 통신주의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
미국 C-band 주파수 경매 가격 상승으로 Verizon, AT&T 등 미국 통신사 투자 부담 확대
국내 기관은 LGU+ 순매수, KT,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인 SK텔레콤 순매수, KT, LGU+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SK텔레콤의 5G 신규 요금제 신고서 제출로 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본격화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시장 우려가 존재하나, 5만원 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낮음
미국 C-band 주파수 경매 종료 시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질적 수혜로 연결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T맵 모빌리티 공식 출범	30	31	1	2
3	4	5	6	7	8	9

3 주간 뉴스

▶ SKT, 5G 새 요금제 내놓는다...인가제 폐지 후 첫 약관신고 (ZD Net Korea)

- SK텔레콤, 29일 5G 신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서를 제출
-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요금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될 전망
- 유보신고제에 통신시장 사업자도 과거 요금약관을 인가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 가능
- ⇒ SK텔레콤이 출시하려는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기존 상품보다 월정액을 낮춘 점이 특징
- ⇒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

▶ 통신3사 5G 성적표 다운로드 속도 SKT, 커버리지 LGU+, 실내 인프라 KT (중앙일보)

- 이동통신 3사 가운데 5G 다운로드 속도, LTE 전환율, 지연시간 등에서 SK텔레콤이 우수한 평가
- 5G 커버리지는 상반기보다 다소 확대된 가운데 커버리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LG유플러스
-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KTX·SRT 등 교통 인프라에는 KT가 가장 촘촘하게 5G망 구축
- ⇒ 이번 통신 커버리지 품질평가는 85개 시의 주요 행정동으로 확대해 전국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 ⇒ 가입자 5000만명의 LTE 평균 속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측정돼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예상

▶ 해 넘기는 딜라이브·CMB 매각 (아이뉴스24)

- 유료방송 인수합병(M&A) 2차전 신호탄을 쏘아 올린 딜라이브, CMB 매각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
- KT와 매각을 논의 중인 딜라이브는 자회사 IHQ 매각 등 몸값을 줄였지만 최근까지 M&A 체결 실패
- 통신3사와 '기밀 유지 협약(NDA)'을 맺고 매각 물밑작업을 해오던 CMB도 뚜렷한 성과 도출 실패
- ⇒ KT와 SK텔레콤의 그룹사 개편, 중간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일정이 막판 변수가 된 모양새
- ⇒ KT는 그룹사 개편,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IPO 준비로 2021년 초 이후 협상이 재개될 전망

▶ 5G 광통신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했다 (ZD Net Korea)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 광통신 핵심부품 11종의 사업화에 성공해 총 27억원의 매출 성과 달성
- 광통신 부품은 대용량화와 저지연화가 필수적인 5G 네트워크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 부품
- 5G 네트워크망에는 4G 대비 더 촘촘한 기지국 구성이 필요해 파장다중화 방식의 적용이 일반화
- ⇒ 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 핵심 광부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
- ⇒ 광통신 부품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2021년부터 수입대체 등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전망

▶ 5G 가입자 1000만명 돌파...새해 성장 지속 (전자신문)

-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1년 7개월 만에 5G 이동통신 가입자 1000만명 돌파
- 11월 국내 5G 가입자수는 1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완전한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 11월 5G 가입자수 급증은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출시로 인한 5G 스마트폰 경쟁 효과
- ⇒ 2021년 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및 삼성전자, LG전자 5G 모델 스마트폰 확대 전망
- ⇒ 요금제 및 단말기 다양화로 5G 가입자 확산이 예상되며 무선 ARPU 상승 기대감이 유지될 전망

▶ LGU+, 2G 종료 속도 낸다...가입자 60% 전환 협의 완료 (아이뉴스24)

- LGU+, 2G 가입자의 60% 이상인 사물통신(M2M) 가입자와 LTE 전환 협의가 사실상 완료
- 이들에 대한 보상 규모는 앞서 SK텔레콤 사례를 참고, 일반가입자(B2C) 보상계획도 마련 중
-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2.7% 수준이나, 주파수 사용 기한은 6개월 남은 상황
- ⇒ LGU+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2G 서비스 종료 공식화, 8월 과기정통부와 종료 논의 돌입
- ⇒ 사전 논의 후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할 예정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38,000	17.7	17.0	17.9	1.2	1.3	1.2	1.7	4.9	5.1	5.4	5.2	5.6	7.4
	KT	248,000	5.8	21.8	22.5	1.1	1.2	0.7	0.8	4.5	4.7	2.5	2.4	5.1	5.8
	LG유플러스	11,750	4.7	12.2	12.8	0.8	0.9	0.7	0.6	3.0	3.2	3.3	3.1	10.2	8.3
미국	AT&T	28.8	204.9	170.6	172.7	30.3	31.4	21.2	21.9	55.1	55.8	6.8	6.7	12.1	12.4
	Verizon	58.8	243.1	128.2	133.1	29.5	31.8	18.7	20.8	46.9	48.6	7.5	7.2	28.8	27.4
	T-Mobile	134.9	167.4	69.3	77.9	7.2	8.4	3.3	4.1	24.6	27.0	9.5	8.6	5.9	5.3
일본	NTT Docomo	3,880.0	121.4	43.4	44.6	8.0	8.6	5.5	6.0	13.6	14.3	8.6	8.5	11.2	11.8
	KDDI	3,066	68.5	48.6	50.6	9.7	10.1	5.9	6.3	15.7	17.0	5.1	4.9	14.9	14.4
	Softbank	8,058	163.2	57.1	58.5	-12.6	12.4	-7.1	16.3	5.6	20.9	45.4	12.6	-11.3	23.7
중국	China Mobile	44.2	116.7	116.0	119.8	17.5	17.4	16.4	16.6	44.1	44.9	1.2	1.2	9.6	9.3
	China Unicom	4.5	17.6	46.0	47.6	1.9	2.2	1.9	2.2	14.6	15.0	1.3	1.3	3.9	4.5
	China Telecom	2.2	22.4	59.3	61.9	4.5	4.7	3.3	3.4	18.1	18.6	1.8	1.8	5.9	6.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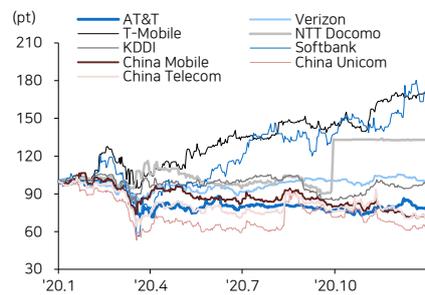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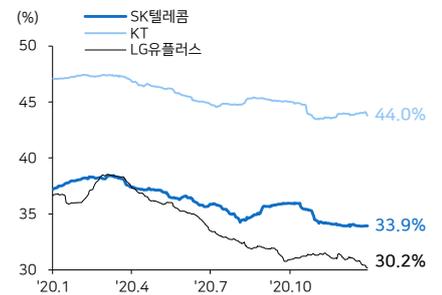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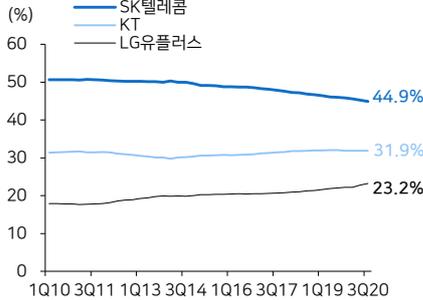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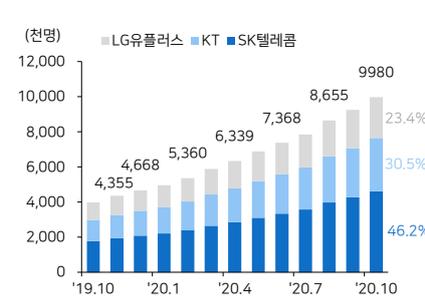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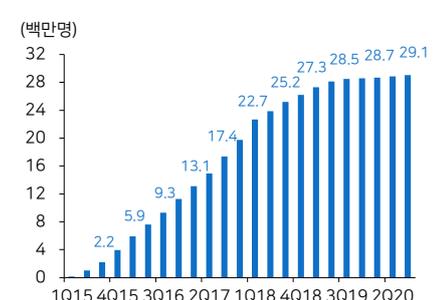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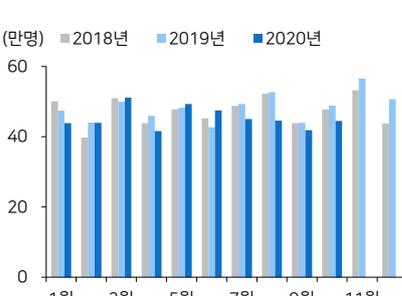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